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JUNE 2015

A JOURNEY TO DETOX

윤광준의 일본 정원 투어

Chef's Summer Salad

뉴욕의 플로럴 아티스트 클레어 강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1
2



2015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다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예술 섬의 축제, 베니스 비엔날레! 제56회를 맞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속살을 두 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았다. editor 정승혜 photo 베니스 비엔날레, 김만규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로 가는 이유

독립 큐레이터 김승민



1 미국관 대표 작가인 조앤 조나스(JOAN JONAS)의 2005년 퍼포먼스 작품, 'The Shape, The Scent, The Feel of Things'. 2 치하루 시오타 작가의 일본관. 3 베니스의 풍경. 4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던 Biblioteca.

2015년, 밀라노 엑스포와 동시 개최를 위해 6월에서 5월로 개막일을 앞당긴 베니스 비엔날레(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전시에서 저 전시로 미로 같은 베니스를 헤매야 하는 많은 '순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탈리아의 따가운 별 아래, 100개가 훨씬 넘는 전시를 소화해야 하는 일정은 어떤 예술 애호가에게도 힘든 일이기도.

한결 시원해진 날씨가 무색하게, 몇 배로 비싸지는 호텔비와 넘치는 오프닝, 디너 이벤트 등으로 고되기는 마찬가지다. 3일간의 프레스, VIP 프리 오프닝 기간도 말이 VIP 오픈이지 전시관마다 줄을 서서 보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붐빈다.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비엔날레를 찾아올까? 그리고 이후로도 6~7개월 동안 37만 명이 넘는 예술가와 미술 애호가들이 베니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제56회째를 맞이하며,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이자 명실상부 최고의 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큐레이터와 작가들에겐 2년마다 한 번,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다. 또한 황금사자상으로 당대 미술의 최고 작가를 꼽는 치열한 격전지이자 스타 작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평소에 갈망하던 세계적인 작가를 화장실에서, 길거리에서, 파티장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무대이기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는 '관광지'에서 '성지'로 변모한다. 올해 본 전시에 참가한 작가는 총 136명. 이 중 무려 89명이 처음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입성한 예술가들로, 특히 본전시는 비엔날레 총감독이 직접 초청해야만 참가할 수 있는데, 이 중에는 6년 만에 초대받은 한국 작가 3인(임흥순, 김아영, 남화연)도 포함돼 있다. 그중 임흥순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는 물론 뒤늦게 고국도 주목하는 예술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비엔날레 기간이면 89개의 국가관과 44개의 공식 협력전 외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병행 전시로 인해 그야말로 베니스라는 섬 자체가 미술의 향기에 취한다. 전시를 보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다 찾아가 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물 위에서 빛나는 미술 작품의 이면에는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전쟁이 치열하다. 세계 거물 컬렉터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대 자본은 고급 선상 파티와 엄청난 광고비로 흘러 들어간다. 실제로 리알토 다리 정면에 걸리는 광고료는 올해 비엔날레 기간 동안 500만 유로, 약 6억원이라는 기사가 일주일 전 Art.Net에 떴을 정도. 미술은 배경이 된 듯하지만 이 중에서도 빛나는 작품은 있기 마련이다.

2015, 모든 세계의 미래

2년 전 베니스 비엔날레는 모든 지성을 감싸 안는 예술을 모토로 이탈리아인 총감독의 지휘 아래 <백과사전적 궁전>이라는 전시를 개최했다. 반면 올해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세계인 양, 루부탱을 신고 개인 요트를 몰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찾는 호사스러운 분위기를 비판하는 듯, 'All the World's Future(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장엄한 테마를 붙였다. 이는 올해 총감독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키위 엔위저(Okwui Enwezor)에게는 첫 아프리카 출신 총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이미 그는 1999년 <다큐멘타>라는 실험적 미술 전시를 통해 큐레이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극했다.

비주류였던 아프리카 출신의 현대미술 작가를 주류의 흐름에 당당히 합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오쿠이 엔위저 감독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술을 정치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자세를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이어갔다. 자본과 노동 착취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니, 이 모든 상황을 예술가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세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 아프리카 출신의 영국인 건축가 데이비드 아디아예가 지은 중앙관의 새로운 공간 '아레나'에선 마르크스의 <자본론> 전권 낭독회가 열리기도 했다. 100년 전 마르크스의 저서가 미술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쿠이 엔위저는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미래를 관측하는 과거'라는 답을 내놓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올해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황금사자상 국가관'은 아르메니아(Armenia) 대학살 100주년을 추모한 '아르메니아공화국'관에 수여됐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이란 등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이주민)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곳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리라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했다.

황금사자상 평생공로상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 작가 엘 아나츄이(El Anatsui)에게 돌아갔다. 커피 농장의 착취를 상징하는 커피 포대가 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설치 작품이 된 모습은 장엄한 동시에 슬펐다. 은사자상을 수상한 한국 작가 임흥순의 단편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은 평생을 공장에서 '시다'로 보낸 어머니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다. 또 올해 세 번째로 초대받은 중국 작가 쉬빙(Xu Bing)의 작품인 물 위의 8톤짜리 '피닉스'는 버려진 공구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베이징의 국제금융센터 건설 도중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오브제이기도 하다. 또한 강압적인 테러를 비판하는 이라크 파빌리온의 작품은 IS 테러에 대한 시위를 나타냈고, 미국 작가 패트리샤 크로닌(Patricia Cronin)은 강간, 납치되고,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된 어린 여자아이들의 버려진 옷들을 쌓아 만든 오브제를 한 작은 교회 안에서 전시했다. 이처럼 인권 문제와 노동력 착취 문제는 이번 전시의 다른 많은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일관된 주제 의식이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묘미, 국가관

본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오스카르 무리요(Oscar Murillo)의 거대한 검은 깃발처럼, 오쿠이 엔위저가 선택한 전시들은 제3세계의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하여 공공성을 강조하며, 아름답지만 승고한 미를 보여주려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영국관처럼, 사라 루카스의 유머러스한 작업과 더불어 역사적인 협업을 보여준 전시장도 있었다. 두 나라로 분리된 상태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직 영구적 국가관이 없지만, 이번 비엔날레에서 올해 최초로 하나의 파빌리온으로 합쳐졌다. 'My East is Your West'라는 제목의 라쉬드 라나(Rashid Rana)의 인터랙티브 비디오 작품은 관객이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같은 방 안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1995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안에 마지막 국가관으로 설립된 한국관은 유리벽과 고선형 벽 등 건축적 특수성으로 인해 화이트 큐브 혹은 블랙박스의 공간에서 주로 보여지는 미술 작품으로 한정된 것도 사실이다. 올해는 문경원 & 전준호 작가가 한국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두 개의 고화질 LED 스크린과 내부에 설치된 프로젝터, 모니터를 이용한 작품을 설치했다. 이로써 작품들이 제각기 구별되더라도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서로 교차될 수 있게끔 했다. '축지법과 비행술'





작업을 보기 위해 미국 뉴 뮤지엄 부관장이자 전년 비엔날레 총감독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공동 디렉터 줄리아 페이튼 존스, 세계적인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많은 귀빈들이 참여하여 문경원 & 전준호 작가의 신작에 대한 큰 관심을 방증했다. 이 외에도 5만 개의 열쇠가 붉은 실에 얽여서 보트에 연결된 일본관, 자국의 폐쇄적인 이민법을 상징하듯 정문 앞에 벽돌을 쌓아 가벽을 만든 독일관, 덴마크로 입양된 아티스트 단보의 개념적 작품이 설치된 덴마크관, 그리고 오랫동안 이슬람 문화권에 있었으면서도 무슬람 모스크(신전)가 없던 베니스에 모스크를 설치해, 미술 관객이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고 온 무슬람 신자들로 인해 전시관을 폐쇄하라는 압력을 받았던 아이슬란드관 등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는 국가관들은 비엔날레의 묘미였다.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각 국가관 대표로 여성 작가들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조앤 조나스(Joan Jonas), 일본의 치하루 시오타(Chiharu Shiota), 호주의 피오나 홀(Fiona Hall), 러시아의 이리나 나코바(Irina Nakhova), 영국의 사라 루카스(Sarah Lucas), 스위스의 파멜라 로젠크란츠(Pamela Rosenkranz), 노르웨이의 카밀 노멘트(Camille Norment) 등이다.

비엔날레 병행 전시와 게릴라 전시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전시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거장 이우환, 박서보 등 단색화를 고유명사로 표현한 <단색화> 전시부터 필자가 기획했던 한국의 중진, 신진 작가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었던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원제: 슬리퍼스 인 베니스) 외에도 <개인적 구조>에 초대된 한호, 이이남 작가, 한국 그룹전 <나인 드래곤즈> 등 이례적으로 많은 한국 현대미술 게릴라전이 곳곳에서 개최되어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높였다.

보고시안 재단이 주최한 <단색화>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는 거장 6명의 작품 70여 점을 아름다운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에서 소개했다. 정상화(83), 박서보(84), 하종현(80), 이우환(79) 등의 작품 외에도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인 김환기(1913~74)와 정창섭(1927~2011)도 소개되었다. <단색화>展을 후원한 국제갤러리 측은 “단색화, 초기, 중기, 현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전시회는 한국 대표 거장들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기도, 앞서 말한 한국의 거장들 역시 베니스에서의 무대는 떨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미술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컬렉터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작품들이 새로운 기획자, 기관장들에게 소개되어 후속 전시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지독한 인연, 그리고 슬리퍼스 인 베니스

필자 역시 10년 넘게 런던을 베이스로 해외에서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하던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비엔날레의 ‘순례자’가 되어 6회 이상 베니스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컬렉터들, 명함을 당당히 내미는 우수 미술관의 큐레이터들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는 안 오리’를 외쳤지만, 매회 다시 향하게 되었다. 이런 내 모습은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마크 윌링거의 <슬리퍼>라는 영상

1 러시아 작가 이리나 나코바의 작품 앞에 선 관람객들. 2 사라 루카스의 작품이 있는 영국관. 3 중국관에서 열린 수변 콘서트. 4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에서 열리고 있는 <단색화>展. 5 임흥순 감독, 그의 작품 <위로공간>이 상영되고 있다. 6 <단색화>展의 이우환 작가의 작품. 7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아르메니아공화국'관의 내부.

작업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주인공 구스타프 본 아펜바허는 절대적인 미를 상징하는 소년에 반해 베니스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 콜레라에 걸려 죽음을 맞이한다. 이미 2001년 영국관 작가로 참여했던 마크 윌링거 역시 2004년 작품 <슬리퍼>에서 꿈으로 변장한 채 작가 자신이 작품이 되어 베를린의 미술관에서 10일 동안 배회하며 괴로워했다. 필자에게 이 두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형식 속에 갇혀, 나아가서는 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싸움 속에서 갇힌 채 매일을 이상과 현실 속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모습과 다름없다는 인상을 안겼다. 현재 세계 아트 월드를 흔드는 100명 중 한 사람이 우리 전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은, 우리 작가들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된 많은 '슬리퍼스'들이 동감할 수 있는 전시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국제적인 자본도 없고, 재원이나 실력도 부족하지만 도전할 수 있었기에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바꾼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인상과도 결국 거절당한 작가들의 살롱이었다) 그런 의문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심장부로 들어가 카운터컬처를 제시해보자, 판을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이 전시 <슬리퍼스 인 베니스>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여정

영어에서 '슬리퍼'는 스파이가 지령을 받기 전에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신분을 감추고 잠복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강임윤, 구혜영, 김덕영, 우디킴, 이현준 등의 젊은 작가 8명(7팀)은 모두 '슬리퍼스'가 되어 앞서 말한 두 작품에 대한 해석과 함께 베니스에서 우리의 위치와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신작을 <슬리퍼스 인 베니스>전에 내놓았다. 의도했던 홍보 포인트이기도 했던 터너상을 수상한 마크 윌링거와의 전시, 그리고 개성이 철철 넘치는 7팀의 '슬리퍼스'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을까. 베니스의 랜드마크인 리알토 다리 인근에 자리 잡은 전시장에서 개최한 5월 8일 전시 오프닝에는 자정까지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서는 프랑스 현대미술의 아이콘 생트 오를랑, 영국 미디어 아트센터 FACT의 마이크 스텝 관장, 영국의 비평가 사샤 쿠독 등 전 세계 각국의 미술 인사가 대거 모여 베니스의 중심에서 한국 미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소설과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본 전시의 기획 의도와 이를 7팀의 작가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작품으로 풀어낸 실험적인 전시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이주영 위원 등이 특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우리는 결국 'Somebody'였다가 'Nobody'가 되는 베니스에서 느끼는 바가 같아서가 아닐까? 그렇지만 2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작가와 큐레이터를 꿈꾸는 '슬리퍼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슬리퍼스는 예술가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아펜바허가 되어 가면의 도시 베니스, 지성의 가면을 쓴 미술의 제전으로 향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왜 나는 '자신의 이상향'으로 가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그토록 나를 사로잡는가? 2년에 한 번씩, 꼭 베니스로 향하는 필자처럼, 우리 모두에겐 이상향이 있고 그곳까지 가는 여정은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다.



1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관, 2 <슬리퍼스 인 베니스>에 참여한 mr36 작가의 작품, 3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 작가와 큐레이터 등이 모여 만찬을 즐겼다, 4 <슬리퍼스 인 베니스> 작가 중 한 명인 강임윤 작가의 작품. 나르시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